

↑ 코스피 2576.16 (+18.03)	↓ 코스닥 734.92 (-12.03)
↑ 금리 (미국 9년) 2.594 (+0.029)	↓ 환율 (원-달러) 1446.10 (-8.40)



## ‘대금 못 받을라’... 협력사 납품축소·중단사태 현실화

### ‘기업희생’ 홈플러스 파장 일부 입점사들 1월 대금 못 받아 홈플러스 “순차적 지급 예정” 해명 개인·기관 투자자 손실도 불가피

홈플러스 기업희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1월 매출 대금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만여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손실 위험까지 부각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내 입점 업체들이 지난 4일 현재 1월 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특약계약을 포함한 임대료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의 임대 계약 종류는 임대갑, 임대을(특약 계약 포함)의 두 가지다. 임대갑 방식은 홈플러스 입점 업체가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으로,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에 정산받을 돈은 없다.

다만, 특약 계약을 포함한 임대을 방식 입점 업체는 사정이 다르다. 매출액 전체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대신, 홈플러스가 POS(포스)기(대형마트 계산기)로 매출을 관리한다. 한 달 후, 홈플러스는 임대료와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계산해 정산해 줘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희생절차 개시에 들어가면 일반상거래 경우 법원의 허락이 떨어져야 자금이 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법원의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용 현금 잔고는 3090억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 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6000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금 지급 날짜는 답변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며칠 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주요 납품업체들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

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날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 상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며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과 삼양식품도 이날부터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고를 중단했다. 오뚜기의 경우 홈플러스 납품 물량을 줄였다. 이들 업체는 홈플러스가 협력사 대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로서는 납품 재개 시기도 미정이다.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매일유업, 풀무원, 동원F&B, 롯데웰푸드, 웅진식품 등 주요 업체들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개인 및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민가에 떨어진 폭탄 날벼락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

## “재생 치료제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 혁신”

### ‘3월 상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씨 2027년부터 상용화 오디세이 3년간 10배 이상 성장

“오가노이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하게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래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인체 장기를 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적용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소재 평가 솔루션을 공급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대표 제품은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아톰(ATORM)’과 오가노이드 신소재 평가솔루션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오디세이(ODISEI)’다.

아톰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난치성 장 궤양 치료제 ‘아톰-씨(ATORM-C)’는 손상된 장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근원적 치료법을 제공한다. 회사는 고효율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과 내시경을 활용한 투여법, 자체 개발한 세포외기질 등 기술을 통해 아톰-씨를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톰은 손상 조직 내 생착 및 분화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

아톰-씨는 작년 환자 투여 후 추적 관찰을 시작해 올해 임상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 임상 단계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된 데 따라, 회사는 올해 하반기 첨단재생의료 치료 목적으로 아톰-씨를 승인받고 2027년부터 국내 병원을 통해 상용화를 이를 계획이다. 글로벌 상용화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기술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재생 치료와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분야”라며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오가노이드 기술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활용해 미래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與, 이재명이 쏘아올린 ‘상속세 개편’에 맞불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 권영세 與비대위원장 자제안 내보 “시대변화 반영, 오랜 불합리 개선”

국민의힘이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제안을 내놓아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 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



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에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 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건의 타당... 정부 적극 검토해야”
- ▲ 오세훈 “여야 초월하는 ‘국민 개헌 연합’ 만들자”

- ▲ 정부, 펜타닐·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강화... 입영대상자 마약 검사
- ▲ 국방부 “오폭 사고 규명 전까지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

- ▲ 권영세, 포천 軍 오폭 사고 현장방문... 지역주민 위로
- ▲ 경찰,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소환 통보



# BYD·EVE 첫 등판... 韓 vs 中 배터리 글로벌 선점 기사

## 인터배터리 2025

‘인터배터리2025’에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차세대 기술력을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중국 주요 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졌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5’에는 중국 배터리 업계의 강자 BYD와 EVE에너지가 처음으로 참가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 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으나 중국 관람객을 비롯해 관람객들이 두세 명씩 꾸준히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양사의 부스는 작은 규모였으나 자국 주력 제품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력을 소개했다. BYD는 전기자전거 및 전기오토바이용 배터리를 주요 전시 품목으로 선보였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별도로 전시하지 않았다.

BYD는 자사의 LFP배터리가 높은



인터배터리 2025 BYD 부스.

**BYD** 자전거·오토바이용 주력전지 LFP 안정성·긴 수명·고출력 강점

**EVE** LFP·LMFP·전고체 등 소개

**LG엔솔·삼성SDI·SK온** 국내 3사 안전성·기술력 등 中과 차별화 강조

안정성과 긴 수명, 고출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이라 설명했다. 또한 자체 배터리 셀과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팩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어 수직적 통합 전략을 기반으로 엔드투엔드(e

nd-to-end)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VE도 BYD 부스 근처에 자리를 마련해 자사의 LFP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LMFP(리튬·망간·인산·철)과 전고체 배터리도 전시하며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했다.

특히 EVE의 부스는 LG화학 부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LG화학 부스에 비해 관람객 수는 적었으나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맞서 국내 배터리사들은 배터리



인터배터리 2025 EVE에너지 부스.

/차현정 기자

안전성과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와 함께 BMTS(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SDI는 50A급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배치해 차세대 기술의 강점을 부각했다. SK온 또한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은 낮은 고전압 미드니켈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전시회가 개막한 지난 5일에는 각사 수장들이 참석해 업무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중국과의 경쟁 승부수로 지식재산권(IP)을 내세웠다. 그는 “LG에너지솔루션은 46시리즈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투팩(CTP) 기술 등을 활용해 중국 업체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79개다. 지난 2023년 24개였으나 2024년 62개로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차현정·이혜민 기자 hyeo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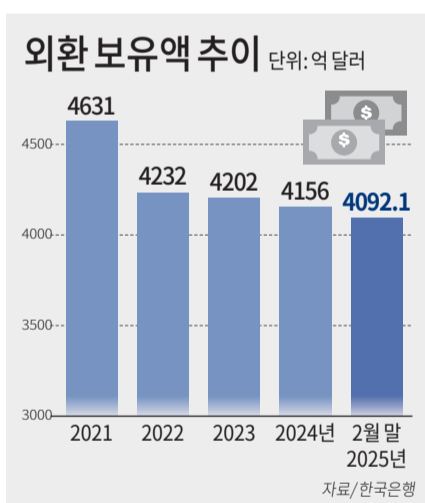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 4092억 弗... 4년9개월 만에 최저

한은, 지난달 말 보유액 18억 弗 줄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확대 영향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8억 달러 감소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5월 말(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4156억 달러로 2억 달러 늘었다가 올해 1월 말 4110억 달러로 46억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



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제공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

를 말한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8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80억1000만 달러로 27억1000만 달러 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8억4000만 달러로 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 매입한 뒤 현재까지 총량을 104.4톤(t)으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20만주 공모... 희망가 1만7000원 부터

>> 1편 '재생 치료제로 미래 의료...서 계속

현재 기업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오디세이(ODISEI)’는 동물실험 없이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하는 평가 솔루션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및 식품 기업 등과 총 40여 건 이상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오디세이의 매출은 상용화를 시작한 2020년부터 3년간 10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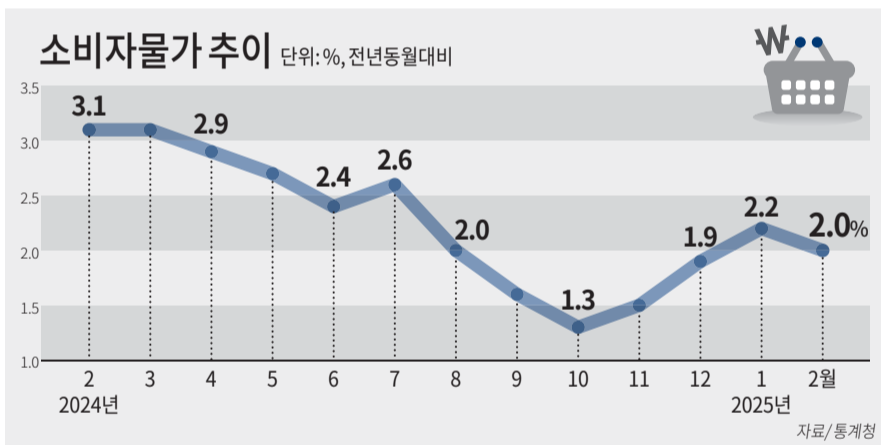
성장했으며, 향후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27년에는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만 대표는 “오디세이는 인체와 유사한 장기를 사용해 종간 차이에 의한 간극을 좁히고, 윤리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어 수요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 ADC와 항암 백신 등 새로운 모달리티 약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물 평가의 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효성 독성 평가 모델로 오가노이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글로벌 확장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함께 이뤄낼 계획이다. 우선 기술 연구 및 고도화가 가능한 국내 연구소,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사업장과 함께, 독일·베트남·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현재 유럽·북미·동남아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120만주를 공모하며,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1만7000원~2만1000원이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총 5영업일 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9~20일 이틀에 걸쳐 일반 청약 받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석유가격 상승에... 물가 두달 연속 2%대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산물 가격 1.2% 내려 다소 안정화 석유류 가격 전년동월대비 6.3% ↑

고환율 지속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다. 다만 2월(2.0%)에는 1월(2.2%)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로 2% 올랐다. 농산물 값이 다소 안정화하면서 전체 물가를 전달보다 다소 끌어내렸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은 1400원 후반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 탓에 6% 넘게 뛰었다.

품목별로 농산물 가격이 1.2% 내렸다. 과일류가 5.3% 내리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감(-27.7%), 참외(-26.7%), 복숭아(-25.7%), 토마토(-19.5%) 등의 가격 하락세가 컸다. 지난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사과(-2.3%) 값도 내렸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며 “석유류를 제외한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8%로 안정적”이라고 설

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고환율 영향으로 6.3%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2월 배럴당 80.9달러에서 올해 2월 78.2달러로 내렸으나 환율이 1331원에서 1447원으로 올랐다. 축산물(3.8%), 수산물(3.6%), 전기·가스·수도(3.1%), 외식(3%),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2.9%)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업제품중에서는 휘발유(7.2%), 경유(5.2%)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지역난방비(9.8%), 도시가스(6.9%), 상수도료(3.7%) 등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0.8%, 외식은 3% 상승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까지 2%대를 기록하다가 9월 1.6%를 기록한 이후, 10월 1.3%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11월(1.5%), 12월(1.9%), 2025년 1월(2.2%)까지 다시 오름세를 타다 2월에는 2.0%로 내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단기이익 챙기고 장기성장 모르쇠... PEF 규제·제재 목소리

(사모투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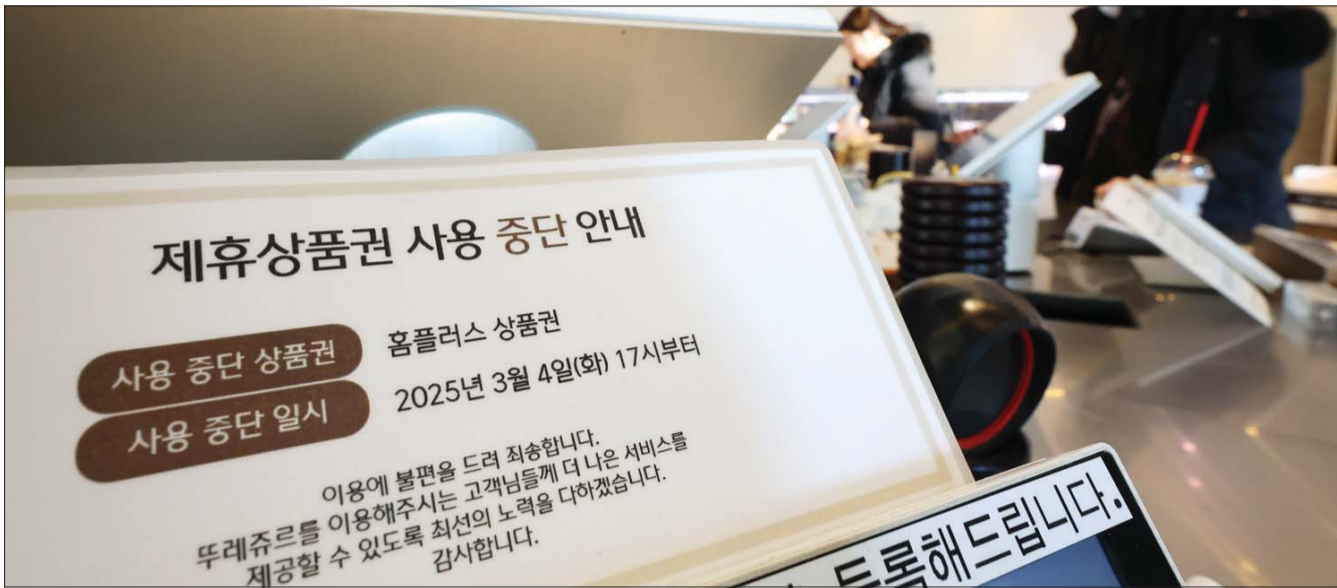
#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으로 4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고도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중재를 신청해 일부 승소했다.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외국계 투기 펀드들의 전유물 쟁점으로 여겨져던 '모럴 헤저드'와 '떡튀의 악몽'을 소환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다시 높여려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상식이지만, MBK는 기다렸다는 듯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부터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PEF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재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토종 PEF, '모럴 헤저드'와 '생존' 사이 점점 찾아 상생 나서야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는 당시 '떡튀자본' 우려에 대해 "홈플러스의 시장 선도적 지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년간 1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홈플러스 직원들의 현재 고용 조건과 단체교섭 합의안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수 금액은 7조2000억원이었는데, MBK는 이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과적으로 MBK의 인수 자금을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인 셈이다.



6일 서울 시내 한 푸레쥬르 매장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PEF, 인수 이후 수익확보 주력 실질적인 기업성장에는 무관심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보완 필요"

MBK는 홈플러스의 실질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MBK는 장사가 잘되는 알짜 점포까지 매각해 4조원 가량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MBK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도 아니다. MBK는 2007년 복수조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씨앤엠을 인수한 뒤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주화와 고용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외국계 PEF 못지 않게 토종 자본에 대한 시선은 굵지 않다. 이익도 중요하

겠지만 기업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서다. 특히 최근 창업주의 사망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자문업도 활발해지면서 PEF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더 그렇다. 오너 일가 등의 지분 매각을 도우면서 자문 수수료, 성공보수 등을 받는 방식이다.

KCGI는 2019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3자 연합은 실패했지만 KCGI는 한진칼 지분을 팔아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C&E의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개매수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이 회사E의 지분을

확보, 지난해 7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시켰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PEF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내 PEF가 성장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수익성 개선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상당수 EPF는 하락장을 가장 잘 이용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싸게 사 물값을 부풀린 후 되파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미국 대체 투자 플랫폼 아이캐피털이

2002~2017년 미국의 21개 주 연금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가 좋을 때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평균 2.9% 포인트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닷컴 버블 직후인 2001~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2010년 등 경기가 나쁜 시기에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평균 4.4%포인트 높은 수익을 거뒀다.

## ◆착한 PEF 나올 해법 찾아야

사모펀드의 먹성은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5%는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매출로 나온 기업 대다수가 구조조정 매물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라는 우려를 낳는다. 실제 PEF가 사들인 곳의 기업가치 증가 대부분은 매출액 증가에서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2005년~2023년) 결과, PE 투자기업 가치가 증가한 사례의 73.3%는 매출액 증가였다. 이익률 감소로 인해 기업가치는 9.5% 뒷걸음질 쳤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PEF가 '장기 투자'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을 안내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주주 견제를 통해 주주권의 균형·확장을 추구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회생절차 신청 납득 어려워... 대주주 MBK가 책임져야"

## 홈플러스 노조 기자회견

MBK파트너스, 회생절차 신청 규탄 "잠재적 금융이슈 선제 대응 정상 아냐"

"대형마트 2위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나 아니라 10만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고용 불안에 호소하며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안



이달 6일 오전 11시 광화문 D타워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 관계자들이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안재선 기자

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마트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조는 사측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회견에서 "(홈플러스는) 흑시 발생할지도 모

르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여한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도 "MBK는 지난 4일 오후 기습

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우리 모두를 경악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이게 윤석열의 계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이후 현장에서 확산되는 고용 불안 분위기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 폐점이나 정리하고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협력업체들 역시 제2의 위메프 사태를 우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도 "홈플러스에는 현재 2만 명의 직원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 직원과 중소기업인을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 수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 홈플러스에 생존을 걸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을 세운다면 직원을 줄이고 점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MBK가 책임지는 방식의 회생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치권이 MBK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회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절 고용 유지 지원금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점포나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절차는 금융 채권 상환에 대한 유예 조치일 뿐,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임금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영업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국민연금 RCPS 6000억 투자... 대규모 손실 위기

(전환상환우선주)

## >> 1면 '대금 못 받을까...'서 계속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280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1일에는 6개월 만기 5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CP, 전자 단기사채 등 발행 잔액은 19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금에는 국민연금의 투자금도 물려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펀드를 통해 전환상환우선주(RCPS) 약 6000억원을 투자했

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바꾸거나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주 형태의 주식이다.

한 대기업의 기업회생 실무 담당 관계자는 "보통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원 감독하에 채무를 변제할 때, 변제 대금이 100% 현금 지급인 경

우는 거의 없다"며 "대금이 변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제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아직 회생계획안 작성 중"이라며 "변제 방식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



# ‘가성비 전기차’ 보조금 변수에 발목... 소비자 신뢰도 흔들

## 韓 시장 진출 막힌 BYD

정부 인증 지연 사태에 출시 일정 불투명  
보조금 요건 미비, 가격 경쟁력 타격 우려  
소비자 불만 확산... 신뢰 회복 관건 과제

사전계약 흥행 불구에도 정책 변화 발목  
저온 성능 논란, 배터리 기술력도 도마 위  
출고 지연 지속... 브랜드 이미지 악영향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메기’로 주목받았던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BYD가 위기에 직면했다.

BYD는 올해 초 국내 시장에 브랜드를 론칭할 때부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브랜드다. ‘세계 1위 브랜드’ ‘가성비 모델’ 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BYD의 아토3는 사전계약 개시 일주일 만에 1000건을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BYD는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변경으로 고객 인도 시점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 ◆정부 정책 발목... 최악의 경우 보조금 0원

BYD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신차 인증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다.

BYD는 지난해 5월 아토3와 돌핀, 쉐 등 3개 차종에 대한 정부 인증을 신청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한 개 차종도 인증을 완료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당시 차량 인증 마무리 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부는 BYD 차량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신청 2개월 만에 받았지만 연말까지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하는데 대략 4개월 소요된다.



1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에서 류웨이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처음 출시되는 모델인 만큼 안전성 등을 좀더 꼼꼼히 검사하고 있어 예상보다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환경부는 해를 넘겨 2025년 1월 아토3의 인증을 마무리했다.

BYD코리아는 아토3가 1월 12일 국내 전기차 출시를 위한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인증, 국토교통부 제원 통보, 환경부 배출가스·소음 인증)를 마무리하자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 BYD코리아는 2월 중순 고객 인도를 앞두고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당시 아토3는 사전계약 일주일 만에 계약대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전기차 출시를 위해 인증 절차 외에도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고,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전기차 구매보조금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놓친 것이다. 올해부터 한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바뀐 부분과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챙기지 못한 BYD코리아의 내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제

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State of Charge)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아토3에는 이러한 SOC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BYD코리아는 환경부에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약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환경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라 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경우 BYD코리아가 내세운 아토3의 2000만원 후반대 가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도)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이탈까지... 신뢰·기술력 검증해야

BYD코리아가 아토3의 고객 인도 시점을 2월 중순으로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BYD코리아가 출고 지연 사유나 향후 일정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BYD 공식 커뮤니티 카페와 전

기자 커뮤니티에는 차량 사전 계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 탑재가 필수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지도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예비 구매자는 “다른 브랜드는 인증 잘 받는데 유독 BYD만 문제인 것 같다. 특히 BYD가 사전계약을 진행했다는 건 정부 요구 절차를 마쳤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생각지 못한게 추가된 것이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BYD코리아의 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토3의 저온 주행가능거리에 대해 문제 삼는 주장들도 이어지고 있다.

아토3는 60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완충 시 국내 기준 상온 복합 321km, 저온 복합 309km를 주행하는 것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한 겨울 한파로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아토3의 부분변경 모델이 곧 출시되는데 국내는 재고 소진하려는게 아니냐는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BYD는 이같은 악성 루머와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BYD인터네트발센터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지난달 21일 BYD가 최근 흑색선전의 유포 경로와 단서 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제보자 8명에게 최대 2억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YD코리아는 아토3 출고 지연으로 국내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소비자 이탈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BYD의 현재 모습은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신뢰확보와 기술력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쉐(왼쪽부터), 소형 전기 SUV BYD 아토 3,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

# 전기차 가격 ‘요동’... 현대차·기아도 인하 카드 꺼냈다

현대차, 아이오닉9 가격 조정 돌입  
기아, EV9 가격 인하·트림 추가  
볼보·폴스타 등 수입차도 할인 경쟁

BYD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가성비’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로 등극한 BYD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신형 모델 가격을 낮추고 기존 모델의 판매가격도 인하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전기



현대차 아이오닉 9.

차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제조사의 차량 가격 할인 규모에 비해



볼보 전기 소형 SUV EX30. /양성운 기자

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자 자체적으로 가격 할인에 돌입한 것이다.

기아 프리미엄 전기차 EV9은 올해 480만원을 인하했다. 배터리 용량을 줄인 ‘스탠더드’ 트림도 새롭게 추가해 6000만원대 초반으로 몸값을 낮췄다. EV9과 같은 급인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시작 가격을 6715만원(7인승 기준)으로 책정했다. 보조금을 더할 경우 6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전기 SUV EX30의 가격을 스웨덴, 독일, 영국 등 글로벌 시장 대비 2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출시했으며 폴스타는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9%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입차 브랜드도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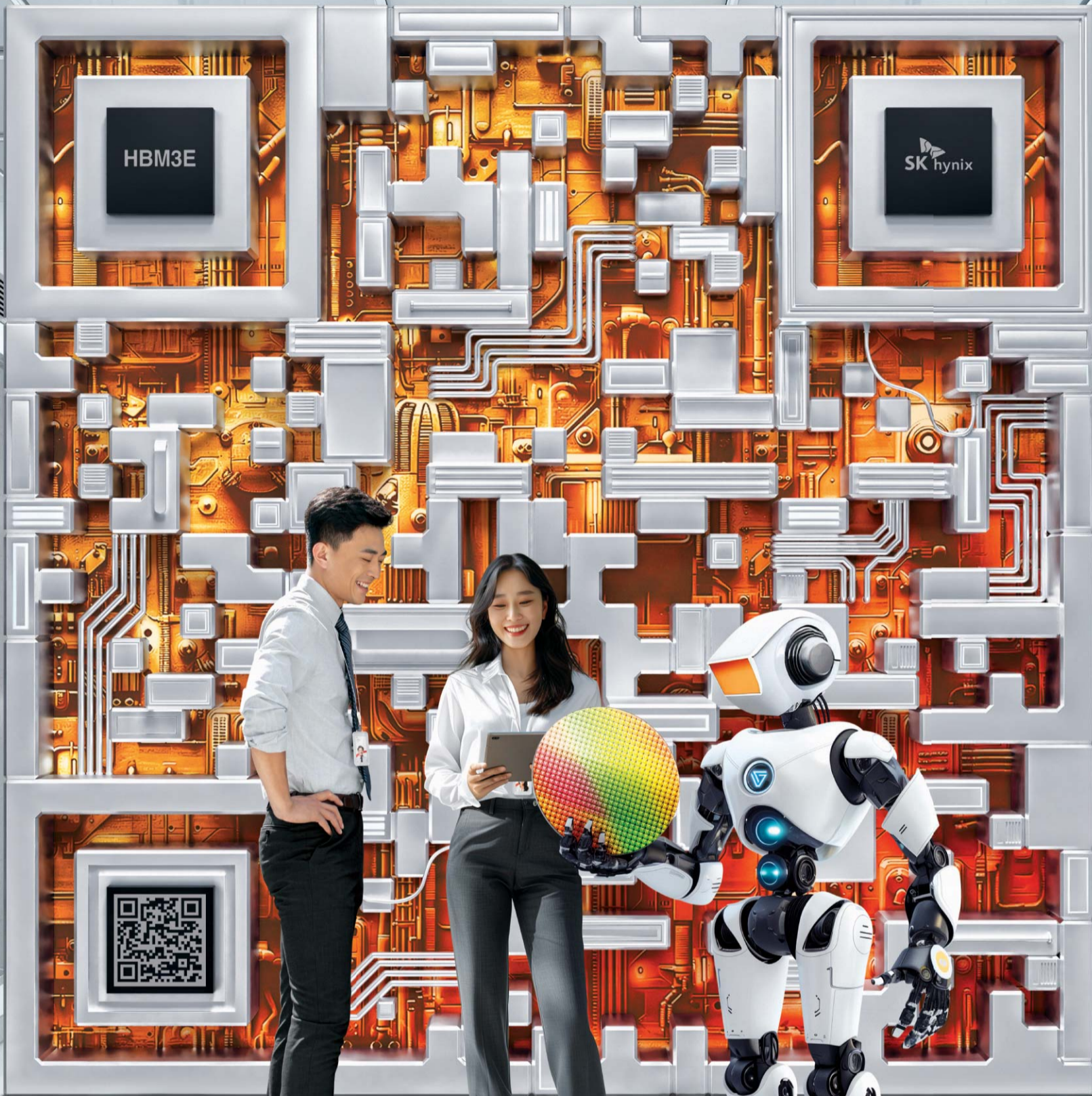
이같은 가격 인하 정책은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의 메기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YD는 아토3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기본형 3150만원, 고급형(아토3 플러스) 3330만원으로 책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도 BYD 아토3 출시 이후부터다.

업계 관계자는 “BYD 국내 진출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가격 인하 정책이 본격화된 분위기”라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에 잇따라 진출할 경우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한동훈, 연이은 추 때리기... '배신자 프레임' 탈피 급급

저서·SNS에 추겨냥 비판 게재 보수지지층에 “미안하고 고맙다” 당내경선 통과 위한 당심 공략

민주당 “韓,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물 인기 영합주의자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탄핵안) 가결이 이뤄지도록 조력해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적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적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 전한길 강

사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측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민주당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도 위협했다.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 머물게 도운 것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는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힘 경선 규칙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5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민심을 잡더라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직무 정지

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에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반대가 당론임에도 찬성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가결됐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 극렬 지지층은 당원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찬성한 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는 방법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인데 어떻게 보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슈 주도권 장악한 추... 발언 때마다 與野 ‘꿈틀’

與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비판 野 비주류 인사들도 추에 민감 반응 어떤 반응에도 추 화제성 얻어 이득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부산신항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

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블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것”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쫓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

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를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예진 기자

## 추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 앞장서야... 당 차원에서 지지할 것”

박형준 시장 “글로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 언급 없어... 실망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PK)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동진(東進)’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

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처했고 거기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 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북극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바다 출발점, 육로 출발점,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트라이포드가 완성되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

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북극항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민주당에 당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

항로 개척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는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희는 글로벌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민주당도,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은 부산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글로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시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에 대해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부산 시장께서는 차제에 이런저런 지역 현안에 대해 그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들어 상당히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우리금융, 이사회 물갈이… 내부통제 강화 올인

금융당국 요구 발맞춰 쇄신 속도 내부통제 전문역 신설·체계 구축 이상징후 검사 시스템 FDS 도입 임기끝 사외이사 5명 중 4명 교체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현장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역량을 확보하고, 사외이사도 대거 교체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투명성을 꾀한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 발맞추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경영실태평가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내부통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관리역·지점장' 체제를 재편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전문역'을 신설해 '내부통제 3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카드·자산신탁·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에도 내부통제 전문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

인력을 확충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징후 검사시스템)'을 우리은행에 도입했다. 'FDS'는 기존 금융사고 사례나 취약 유형을 학습하고, 이상 거래나 징후 발생 시 담당 직원에게 알림 및 자료를 전송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

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이달 중 예정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를 의식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검사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다. 경영평가등급이 하향되면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 항목에서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했다. 평가 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높였다. 올해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임원의 책무도 강화했다.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한 우리금융은 임기가 종료된 사외이사 5명 가운데 4명을 교체했다. 사외이사 교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금융권 사외이사의 연임이 잦은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또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란 관측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를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를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

우리금융 이사회가 오는 26일 최종 선임 예정인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한국금융지주 전 부회장 ▲김영운 다우기술 전 대표이사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 등 4명이다. 국내 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내부통제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인선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쇄신 흐름에 발맞춰 이사회 개편을 단행, 신임 사외이사 4명을 추천했다"라며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와 윤리·내부통제 위원회가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삼성화재-서울대-포스텍 기후변화·사이버 등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삼성화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데이터기반 리스크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삼성화재와 서울대, 포스텍이 공동 주최한다. 손해보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일반보험 산업에서의 창의적인 리스크관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된다.

경진대회는 ▲기후변화리스크 ▲사이버리스크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일반보험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에 참가한 신청팀 중 본선 진출 7팀을 선발한다. 본선 발표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캐롯손해보험 반려견 관리 텔레파시 iF디자인어워드 '본상'

캐롯손해보험 반려견 건강관리 앱 '텔레파시(telepodsee)'가 'iF 디자인어워드 2025'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모바일 앱 카테고리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텔레파시'는 반려동물의 일상 활동(산책, 달리기, 휴식, 수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제1캠퍼스 행정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왼쪽부터),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위경우 숙명여자대학교 부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교육과정 개발 숙명여대와 산학협력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5일 숙명여자대학교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제1캠퍼스 행정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케어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시니어 비즈니스 및 돌봄 전문인력 교육 과정 개발 ▲산업 현장과 연계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행 사례로 오는 5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설하는 '제1기 실버하우징 비즈니스 최고전문가 과정'에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시장분석 및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과정 개발 참여 및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김주형 기자

## 양종희 "ICT기업과 적극 협력 통해 혁신금융 창출"

KB금융그룹 회장 'MWC25' 참관  
금융-통신 시너지 창출 방안 논의

KB금융그룹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25에 양종희 회장이 직접 참석해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T, KT, LG U+ 부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IBM 부스 등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WC 참관은 국내 통신사들이 예고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양 회장은 MWC 현장에서 KT 김영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왼쪽 두번째)과 이창권 디지털·IT부부장(오른쪽 첫번째), 이재근 글로벌 사업부부장(왼쪽 네번째) 등이 MWC25 행사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KB금융그룹

섭 대표와 만나 양사의 강점(금융/통신)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방안 등에 논의했다. 각 통신사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전

환이 금융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내외 ICT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B금융 참관단은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 확보를 위해 통신사 외 삼성전자,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선도 기업도 방문했다. 글로벌 기술 혁신 기업인 IBM과의 만남에서는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모하마드 알리(Mohamad Ali)와 만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무 효율화 및 성과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앞으로도 통신·IT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서울 집값 5주 연속 ↑… 매수심리도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권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0.14% 상승하며 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노원구(-0.03%→-0.03%)와 도봉구(-0.02%→-0.02%)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광진구(0.10%→0.11%)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포구(0.10%→0.11%)도 염리·아현동 중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

를 보였다.

강남권은 송파구(0.56%→0.68%)는 잠실·신천동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0.40%→0.52%)는 청담·압구정동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서초구(0.45%→0.49%)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5㎡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전달(26억6000만원) 대비 1억9000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2를 기록해 전주(97.8)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월 셋째 주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 하나銀, 시니어 전문 대면상담 채널 오픈

서초동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VIP 전문 '연금 더드림 라운지'

하나은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 대면 상담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와 연금 VIP 전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공동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하는 서초동 라운지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와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같은 공간에 배치해 은퇴 설계 시스템과 전문 인력들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

료로 ▲은퇴 필요 자금 분석 ▲은퇴 후 현금흐름 진단 ▲위험보장 분석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상속과 증여 등의 주제로 은퇴설계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을지로와 선릉역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 개최하는 챗GPT 세미나, 와인클래스, 미식클래스 등 ▲건강관리 ▲취미생활 ▲시니어 교육 등의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둘째로 '연금 더드림 라운지'는 1억 원 이상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을 보유 중인 개인 손님을 대상으로 ▲연금자산 종합컨설팅 ▲은퇴 전후 재무설계 ▲절세방법 등 세무 상담을 포함한 1:1 맞춤 연금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숙면온도에 상황별 절전까지 더 똑똑해진 삼성 'AI 에어컨'

2025년 신제품 전 제품군 출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 제어  
'삼성 AI구독클럽' 통해 구입 가능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신 인공지능(AI) 기  
능으로 성능이 강화된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제품군을 7일 출시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신제품은 지난달 선보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에 더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3종까지 총 4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신제품 전 모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I 쾌적',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갖췄다.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쾌적제습' 기능도 탑재했다. 이 기능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AI 쾌적' 기능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날씨, 실내의 온도·습도 정보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빠르고 강력하게 동작하고 때로는 무풍 모드로 전환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AI가 공간의 면적까지 고려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

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환기 알림도 제공한다.

또 'AI 쾌적' 기능은 수면 시간에 특화된 '굿슬립' 모드도 지원한다. 갤럭시 위치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시키고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설정 가능한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삼성전자 가전의 전력 사용량까지 통합 분석하고 절전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에어컨' 라인의 일부 모델에 '빅스비'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도 ▲모드 전환 ▲예약 ▲날씨에 맞춘 센싱·운전 선택 ▲부가기능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내 '자동화' 항목에서 영화모드, 수면모드 등 상황별 기기 동작 시나리오를 설정해두면 빅스비로 간편하게 상황별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제품 전 모델은 집안에 사람의 부재를 감지해 부재 시 알아서 내부 건조를 하는 '부재 건조', 알아서 절전하고 에어컨을 끄는 '부재 절전'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 에어컨 신제품 전 라인업은 '삼성 AI 구독클럽'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oul.co.kr

# LS전선·에코에너지, 美 363억 케이블 공급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대응 주력

LS전선이 LS에코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정책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송전망 구축 수요 증가에 맞춰 수주 실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 발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MV(메가와트)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처음으로 공급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에 2500만달러(약 363억원) 규모의 35kV(킬로볼트)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등 미국 전역의 태양광 발전 단지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고온·강우·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고전압 전송 성능을 갖춰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양사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

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알루미늄 케이블 개발과 미국 안전 규격인 UL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수주는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양사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케이블에 총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물론 가온전선 등 전선 관계사들은 원자재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과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동선(UTP) 케이블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까지 수출이 확대되며 더욱 뚜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기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박차

경기도·화성시 업무협약 체결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기아는 6일 경기도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송호성 사장, 최준영 국내생산담당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는 세계 최초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 및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및 관련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PB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PBV 기반의 W AV(휠체어용 차량), DRT(수요 응답 교통) 모델을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아 송호성 사장이 6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PBV 기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V2G(양방향 충전) 충전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이 맞춤형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출시

## 4세대 배터리 탑재... 1회 충전 481km 주행 (84kWh)

제네시스 배터리 성능·효율 개선  
전기차 세계해택 기준 6490만원



제네시스가 6일 서울 성동구 MM성수에서 전기차 GV60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제네시스가 3년 5개월 만에 럭셔리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60의 부분변경 모델을 6일 출시했다.

신형 GV60은 고급스러운 내·외부 디자인을 강화했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81km까지로 주행거리를 늘렸다. 또 차세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과 특화 사양으로 럭셔리 전기차 특유의 편안함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GV60에 탑재된 4세대 배터리는 용량을 기존의 77.4kWh에서 84kWh로 증대했다. 범퍼 형상 개선 및 3D 풀 언더커버 적용 등으로 공력 성능을 개선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451km에서 481km(복합, 스탠다드 2WD 기준)로 늘렸다. 또 배터리 용량 증대에도 배터리 냉각 성능 개선 등을 통해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기존모델과 동일한 18분(배터리 용량 10%→80%)의 충전 성능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모던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선보이면서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면부는 새로운 디자

인의 범퍼가 강인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화려하고 정교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기술이 담긴 두 줄 헤드램프는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를 극대화했다. 측면부에 날렵한 5-스포크 기반의 '21인치 다크 메탈릭 글로스 그레이 휠'과 '20인치 라이트 실버 휠'을 새롭게 적용했고, 후면부는 GV60의 넓고 낮은 스탠스를 강조했다.

실내 디자인은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 변속기와 원 모양의 디테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또 클러스터와 AVN 화면 사이의 베젤을 없앤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하이테크

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행성능도 개선됐다. 제네시스 GV60에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ICC) ▲차로 유지 보조 2 ▲직접식 감지(HoD) 스티어링 휠 등을 적용했다. 또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적용해 전방의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감속 패턴뿐 아니라 과속 카메라, 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주행 상황별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한다.

GV60의 가격은 전기차 세계해택 적용 기준 ▲스탠다드 2WD 6490만원 ▲스탠다드 AWD 6851만원 ▲퍼포먼스 AWD 7288만원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 "매장에서 '스탠바이미 2' 확인하세요"

전국 베스트샵 순차 전시

LG전자가 최근 사전예약 조기 완판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LG 스탠바이미 2'를 전국 LG전자 베스트샵에 순차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는 LG전자가 지난 2021년 'LG 스탠바이미'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이다. 27형 QHD(2,560×1,440) 해상도 디스플레이

를 탑재해 FHD인 기존 제품보다 화질이 향상됐으며, 고용량 배터리 탑재로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사용 가능해 최근 관심이 뜨겁다.

LG전자 측은 "스탠바이미 2는 지난 달 21일 정식 출시 이후 사전 예약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 이자·수수료에 흔들리던 중소기업인... C·N·K 덕에 '숨통'

(쿠팡·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업계, 중소기업인 판로개척 쿠팡 착한상점, 소상공인 매출 3배↑ 네이버, 100만 소상공인 SME AI 교육 카카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단골

“경기가 점점 안좋아져 폐업을 마음 먹었는데, 플랫폼 활용과 기업의 지원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다”

“높아지는 이자, 수수료 등으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사업에 딱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이용 중이다. 100% 만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 닥친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쿠팡·네이버·카카오 일명 ‘C·N·K’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최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플랫폼사들도 소상공인들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모았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사실 소상공인들과 플랫폼사들은 상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플랫폼사 CEO 간담회’에서 각 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행정관,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중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지방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2022년 ‘착한상점’을 론칭한 바 있다. 이후 1년만에 1조원 돌파, 올해 초까지 누적매출은 3조원을 넘어섰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한 해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한 것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수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 0.57%로 착한상점이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열어준 셈이다.

착한상점은 수도권부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들로 구성됐다. 착한상점 상품은 58만개로, 2023년(46만개) 대비 26% 늘었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

들은 별도의 마케팅 없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강점이 있다. 품질력과 우수하면 자체 인지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쿠팡이 직접 직매입하는 로켓배송의 경우, CS 리스크도 덜 수 있어 부담이 적다. 현재 쿠팡 전체 판매자 중 약 70%는 연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2250만명에 달하는 쿠팡 프로젝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에 기반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신사업부문 관계자는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17일 소상공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성장 마일리지’를 선보였다.

판매자들이 AI 역량을 강화해 시장 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실제 폐업 절차를 밟고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네이버는 그동안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제로 수수료(2019)’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 포인트(2017)’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성장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사업 성장 단계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새책, 파워 등급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프로젝트 꽃의 재원인 ‘분수펀드’를 통해 5년간 6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금융 지원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만 2조 5000억원 이상(누적 13조원)을 중·저신용 대출로 공급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이자 환급과 보증서 대출 보증료, 임대료와 난방비 지급 등에 약 360억원(누적 1조원)을 지원했다.

카카오는 소외된 지역 상권 부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사업 ‘프로젝트 단골’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212개 시장과 15개 상권, 2800여명의 상인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했다.

단골거리 참여 상인 중 50%는 처음으로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참여 상인회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4.9점(5점 만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박창숙 “웹테크 지원사업 신설... 여성특화 산업 키운다”

(여성경제인협회장)

서울 여의도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조직 대표성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 웹테크 지원사업, 내년 예산 반영 총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웹테크’를 중심으로 한 여성특화 기술 기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박창숙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여성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의 수장으로 서 어깨가 무겁고 고민도 많지만 앞으로 3년간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갈 것”은 소감을 전하고 “K-뷰티, K-푸드 등 여성특화 산업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젊은 여성기업인들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여성협

창우섬유 대표인 박 회장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가 돌과구를 찾기 위해 4년 전부터 과테말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박 회장은 “한국에선 섬유산업이 사

양길로 접어들지 오래다. 매달 1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7년을 버티다 내린 결정이었다. (해외에)가보니 많은 기회가 보였다. 10년만 일찍 왔더라면, 내가 좀더 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해외에 진출한 뒤 설레임은 더욱 커졌다. 여성기업들이 해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웹테크’ 산업 선도 여성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웹테크(FemTech)’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

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박 회장은 “아직 국내 웹테크 산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고, 관련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을 목표로 올해 ‘웹테크 지원사업’ 신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여경협이 관련 산업 육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내년에 쓸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다.

박 회장은 지난달 12일 취임식에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표성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여성특화 기술기반 산업 육성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체계 정비 ▲여성기업의 소통과 화합을 제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KCC 직원들이 마이톤스카이가 설치된 서초사옥 더 클렌즈 갤러리에서 잔향시간 시뮬레이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KCC

KCC

### 잔향시간 예측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무료 공개

KCC가 잔향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잔향시간(Reverberation Time, RT)은 실내에서 음원이 멈춘 후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6일 KCC에 따르면 천장재 없이 골조를 드러내는 노출 천장 구조의 대형 카페에서는 실내에서 웅성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리가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면서 잔향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학교, 카페, 사무실과 같이 음향환경이 중요한 공간에서는 잔향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KCC는 건축 설계사와 시공 관계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도 실내 공간의 음향환경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흡음재를 선택해 건물의 용도에 맞는 최적의 음향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게 됐다.

사용자는 KCC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하고 건물의 용도 및 천장재 제품을 선택하면 최적의 잔향시간에 적합한지 계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 국내·외 온라인 진출 돕는다

소진공, 기초·심화교육 등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국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기초 및 심화교육과 글로벌 시장진출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진출 교육은 1대1 현장방문 교육,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통한 오프

라인 실습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국내·외 플랫폼과 협업해 진행되는 플랫폼사 협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1대1 현장방문 교육’은 올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500개사→1000개사)하고, 디지털 전환 취약종인 50대 이상의 중·장년 또는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교육 참여 멘토를 최근 3년간 디지털 특성화대학의 우수 수료생 등으로 구성, 현장에서 온라인 진출 선택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더 운반’ 화주 첫 주문 시 반값

이달만 운임 할인 프로모션 진행

CJ대한통운의 디지털 운송플랫폼 ‘더 운반(the unban)’이 화주 고객 확보를 위한 운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은 3월 한달 간 ‘더 운반’ 첫 주문 화주를 대상으로 운임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더 운반’에 가입한 화주라면 별도 신청 없이 첫 주문 및 운송 완료 건에 대해 운임의 50%, 최대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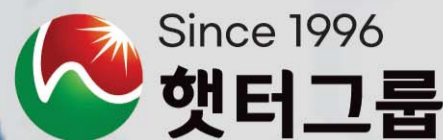
‘더 운반’은 95년 업력을 자랑하는 CJ대한통운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화물운송 플랫폼이다.

먼저 ‘더 운반’은 CJ대한통운이 보유

한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운임을 산출하고 효율적인 운송 경로와 복화 운송으로 운임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원클릭 주문, 실시간 차량 관제, 디지털 정산 관리, 언제 어디서나 주문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춰 고객의 불필요한 리소스 소모를 줄이는 한편 비용 절감도 실현했다.

‘더 운반’은 전문적인 운송 관리가 필요한 화주사를 위한 맞춤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더 운반’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상담을 요청하면 각 기업별 비즈니스 니즈에 최적화된 운송 솔루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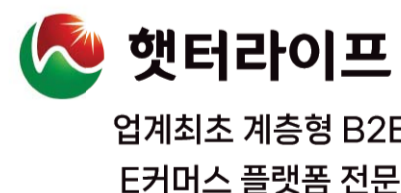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 교육 일정** 2025년 3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 교육 정원** 선착순 20명
-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 교육 목표**
  -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 교육 주관** 햇터그룹
-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7번 출구에서 600m/9번출구 공사중
-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 1522-758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홍범식 “기술보다 고객에 집중하는 ‘사람중심 AI’ 지향”

〈LG U+ 사장〉

‘4A 인텔리전스’ 전략 공개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세미나이 전방위 확대 적용  
AWS와 B2B AI 혁신 가속화

LG유플러스가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전략으로 ‘사람 중심 AI’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AI 기반 서비스 혁신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자체보다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 AI’를 지향한다”며 ‘4A(안심·Assured, 개인화·Adaptive, 동반자·Accompanied, 이타적·Altruistic) 인텔리전스’ 전략을 공개했다.

홍 사장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AI 시대 선도 기업이 되겠다”며 “구조적 변화를 예견하고 긴 호흡을 가



LG유플러스가 New AI 시대의 청사진으로 ‘사람 중심 AI로 만드는 밝은 세상’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의 모습. /LG유플러스

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비스 개발 속도와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025에서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자사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구글 AI 엔진 ‘제미니(Gem

ini)’를 전방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익시오는 글로벌 최초의 온디바이스 기반 AI 에이전트로, 구글의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정교한 분석, 요약, 추천 기능을 갖춘 ‘액서너블 AI’로 진화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구글이 직접 찾아온 국내 유일 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고 강조

하며, LG유플러스가 구글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LG그룹과의 오랜 신뢰 관계 및 통신 기술 경쟁력을 꼽았다. 그는 “구글은 검색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며, AI 시대에서도 검색 기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글과의 협력이 LG유플러스 AI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범식 사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물론, 일본 KDDI, 중동 자인그룹 등 글로벌 통신사들도 익시오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B2B 영역에서도 AI 혁신을 가속화한다. AWS와의 협업을 통해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MWC 2025에서 양사 협력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조만간 AWS와의 협력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보안 기술에도 집중한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 전시부스에서 AI 보안 기술을 통합한 ‘익시 가디언’을 공개하며 안티 딥보이스, 온디바이스 sLM(소규모 언어모델), 양자암호(PQC) 기술 등을 선보였다.

홍 사장은 “AI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서비스 개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기업들이 보안을 서비스 개발 후반부에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안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 사장은 LG유플러스의 방향성을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아젠다 세터)’으로 설정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서비스, 5G 상용화, 넷플릭스 제휴 등의 혁신을 선보여왔다”며 “이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AI’를 통해 통신과 AI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AI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산업계 총출동 SKT, 해외기관·기업에 AI 거버넌스 공유

### MWC25 결산

산업 경계 허물어져... 참여사 급증  
삼성D 등 국내 전자부품 기업 ‘두각’  
관전포인트, 中 화웨이·샤오미 선전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가 6일 막을 내린다. 그간 MWC는 이동통신사의 무대였지만 특히 올해부터 반도체는 물론 전자 부품 기업들까지 대거 출동하며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진 모습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MWC 2025’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날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관에서 열렸다. MWC25 주제는 ‘융합하라(Converge), 연결하라(Connect), 창조하라(Create), 다. AI가 핵심 산업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모바일기술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과 솔루션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참여 기업은 무선통신과 AI 반도체, 통신장비,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올해 MWC의 참여 기업들도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MWC25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은 전년보다 22곳 늘어난 187개사로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통 3사 등 109개사와 스타트업 78개사가 참여한다. 스페인,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기업은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용 부스를 통해 HBM과 올해 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AI 제품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3E) 등 AI 메모리와 이



지난 3일(현지 시간)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5 샤오미 부스에 전시된 전기차 ‘샤오미 SU7’. /뉴시스

미지 센서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 엑시노스2400과 엑시노스 오토 V920 등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차량용 반도체를 공개했다. 이밖에도 모바일 부문에서는 AI 기능을 확대 적용한 신규 ‘갤럭시 A 시리즈’는 물론 신규 웨어러블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스토리지 등 첨단 제품, SK의 유리 기관, 리벨리온의 AI 추론 특화 신경망처리장치(NPU) 관련 기술력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엔비디아도 이번 MWC 25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이는 데 힘을 쏟았다. 업계에 따르면 피라그라비아 전시장 근방 지하철역을 엔비디아 광고판이 모두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MWC에서는 국내 전자부품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먼저 삼성디스플레이는 최대 5000니트(nit) 밝기의 차세대 스마트폰 OLED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용화한 ‘무(無) 편광판 디스플레이’인 ‘OCF(On-Cell Film)’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SKC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시관 내 AI 데이터센터 구역에서 글라스기관을 실물 전시했다.

삼성전기는 고객 미팅 용도로 프라이빗 부스를 꾸렸다. 장덕현 사장이 직접 방문해 고객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관전 포인트였다. 올해 초 미국 제재로 CES 무대를 밟지 못했던 화웨이는 1관을 통째로 빌리며 최대 규모인 1200m<sup>2</sup> 부스를 꾸렸다.

특히 샤오미는 이번 MWC에서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가전제품에 이르는 탄탄한 AIoT 생태계를 구축한 점을 선보였다. 자사 플래그십 단말기 스마트폰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시리즈를 전시했다.

샤오미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다. 이 제품은 자체 OS인 ‘하이퍼 OS2’를 탑재해 성능을 대폭 개선했으며 구글과의 협력으로 제미니도 탑재해 AI 기능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AI 기능을 탑재한 ‘샤오미 SU7 울트라’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공간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두면 자동으로 연동돼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 화면이 표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T, 해외기관·기업에 AI 거버넌스 공유

‘T.H.E. AI’ 도입 성과 소개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25’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유럽통신사업자협회(커넥트 유럽), 도이치텔레콤 등 해외 기관·기업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협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는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SK텔레콤은 정재현 대외협력담당(CGO·사장) 직속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올해 초 출범시켰다. 올해를 AI 거버넌스 확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번 MWC25에서는 AI 거버넌스 도입 필요성과 함께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도입 성과를 소개했다. ‘T.H.E. AI’는 SK텔레콤 AI의 특성 통신기술 기반(by Telco), 사람을 향한 목표(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AI 행동 규범을 구체화해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GSMA 등 기관과 글로벌 사업자들과 AI 거버넌스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축·적용 방안에 대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SKT-엘리스그룹, AI DC 모듈러 분야 협력

(AI 데이터센터)

PMD 테스트 베드 제작 예정

SK텔레콤이 국내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과 AI 데이터센터 모듈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엘리스그룹은 대면·비대면 교육에 가상화 실습 환경을 구현하는 AI 교육 솔루션 기업이다. AI 실습 서비스를 위한 자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엘리스그룹이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물론 소규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하드웨어까지 독자 개발이 가능한 점에 주목했다. 향후 양사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신속하게 AI 인프라를



SK텔레콤과 엘리스그룹은 MWC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모듈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이 사업 초기 적은 용량, 특정한 솔루션부터 빠르게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모듈러 데이터센터 모델을 사업의 한 축으로 추진 중이다.

양사의 AI DC 기술이 접목된 PMDC 테스트베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시장변화에 부응… 금융발전 선도”

**이순호 예탁원사장 CEO 간담회**  
KSD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 등  
올해 경영목표 8대 추진과제 발표  
“개인투자용 국제 5년물도 출시  
유동성 증가… 고도화관리 노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토큰증권과 블록체인 등 새 디지털 기술의 출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금융시장의 급진적 변화로 인해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탁원의 올해 경영 목표를 ‘핵심 금융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로 정하고 8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추진 과제는 ▲KSD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전자증권 제도 이용 활성화 ▲채권 발행 및 유통

시장 참가자 권리 보호 강화 ▲신증권 결제시스템 2.0 전환 ▲증권 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 통합계좌 활성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지원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등을 맡는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장은 “작년 도입한 국제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투자용 국제의 중도환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안정적인 국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용 국제는 20년물, 10년물도 이어 올해 5년물까지 나온다. 한국 국제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맞춰 더 고도화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어 “전자증권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증권결제시스템 개편, 증권정보 관리 체계 고도화 등 올해의 다른 핵심 사업과제도 잘 수행해 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또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등의 주요 혁신 기술의 연구 및 사업화에 힘쓰고,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일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KSD 혁신금융플랫폼’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전자주주총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 통과를 대비해 출석 확인, 현장 영상 중계, 투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의 구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성과에 대해 그는 “1차적으로는 예탁결제원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을 구현하고 싶고, 더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융株 ‘지지부진’… 코리아 밸류업 상승 발목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전년비 5.73% ↑**  
정치적 불확실성·美 관세에 투심위축  
금융주 약세 속 메리트 상승세 차별화

증시 반등과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 부진이 이어지며 반등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메리트금융지주만 상승세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증가 기준 1007.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5.73% 상승한 수치로,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지수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85.42%), 삼성바이오로직스(+21.31%), 메리트금융지주(+21.59%), HMM(+20.62%) 등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유지하며 지수에 안정적인 흐름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되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금융주는 지난해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환원 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밸류업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발 관세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금융주 중 밸류업 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KB금융은 계엄일 대비 22.33% 하락했으며, 신한지주(-17.82%), 하나금융지주(-9.85%)도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시가총액 순위는 8위에서 10위로, 신한지주는 11위에서 16위로 내려갔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융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트금융지주는 금융주 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사로서의 특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트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2조3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금융업계에서도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2조4537억원)과 불과 약 1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메리트금융지주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연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메리트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메리트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손익 부담 요인이었던 해외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감액(연간 약 3000억원)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평균 5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수급을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한편, 메리트금융지주는 밸류업 세계 개편이 시행 되더라도 100% 자사주 소각 원칙과 주주가치 제고 철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이 5일 2025년 '사랑의 나눔, 헌혈'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 윤자중 디지털(Digital)자산관리본부 이사, 정노식 대한적십자사 팀장이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 임직원 110명 헌혈 참여

300회 달성 직원에 헌혈유공장 수여

NH투자증권은 임직원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헌혈 300회'를 달성한 직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유공장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하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 사회공헌에 대한 더욱 뜻 깊은 의미를 나눴다.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받은 윤자중 디지털(Digital)자산관리본부 이사는

고등학생인 1982년부터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윤 이사는 “헌혈활동은 30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다른 생명을 살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400회를 목표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패를 받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행사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 美 투자비중 늘어… ‘환율 변동성’ 잘 살펴야

연은, 뮤추얼펀드 증권투자 특징

국내 증권시장에서 환율에 민감한 미국 투자자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 환율 변동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전문 경영 펀드)의 국내 증권투자는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패시브(passive) 자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패시브 자금이란 코스피나 나스닥 등 시장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뮤추얼펀드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 중 절반이상은 패시브 자금이다.

보고서는 이들 자금이 투자를 환 변동에 노출시키는 ‘환 오픈’ 형태 위주로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 환율 변동성 지표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WGBI 편입은 이 같은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 자금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한국형TDF2050’ 3년 수익률 42.6%

삼성운용, 평균수익률 22.9%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회사의 대표 생애주기 펀드 ‘삼성한국형TDF2050(UH)’가 3년 수익률 42.6%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TDF 2050 빈티지 평균 수익률 22.9%를 크게 앞선 성과이다.

타깃데이트펀드(TDF)는 근로자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생애주기 펀드’로, 은퇴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한 근로자들을 위한 펀

드에는 ‘2050’이라는 숫자가 붙는다.

시기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은퇴를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특히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TDF 시장은 지난해 말 16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순자산 17조8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 “1000만원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열겠다”

강호동 농협회장 취임 1주년  
설치비 70% 지원해 부담 완화  
스마트폰 제어, 영농비 등 절감  
“농업소득 증대에 생산성 향상”  
적자 계열사 고강도 구조조정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치에만 수십억 원이 드는 정통 스마트팜과 달리, 보급형은 1000만원대의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농협이 설치비용의 70%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은 6일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금년도에 농가 1000여 곳에 보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영농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비용은 1100만원~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설치하면 그 후) 스마트폰으로 물이랑 영양제도 주고 온도 조절도 하고 정말 편리하다”며 “큰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 농협이 70% 보조, 각 농가가 30% 자부담”이라고 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의 전국 농가 확산을 통해 농가 총소득 중 농업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농업소득이 1000만원(1114만원)에 정체가 있다”며 “스마트팜 보급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6일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농협

을 통해 (평균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열어 보겠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에 인력대체 효과,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의견을 많이 교환했다고도 강 회장은 밝혔다.

또 설령 농업소득 3000만 원 달성이 어렵더라도 가시적 성과는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 계열사 경영 관련해서는, 적자난 계열사에 대해 지구책 마련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계열사의 경우,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 정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문제가 추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은행 등 전국에 6000여 개의 사무실이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취임 이후 금융사고를 확실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승진 제한 등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올해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과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확대해 농촌 복지 증진에 나선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먹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협은 쌀 가공식품 육성 및 수출확대를 통한 ‘5만 톤(t) 이상의 쌀 소비’를 목표로 내걸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국-스페인,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KIAT, 산업기술개발센터와 업무협약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와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DTI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산하 기관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리에스고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했다. KIAT와 CDTI는 지난 2016년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유럽의 다자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 ‘유레카’를 통해 한국 정부 기준 28개 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추가로 양자간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합의해 현재까지 4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갱신한 협약에서 두 기관은 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와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주 KIAT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실장,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리에스고 차관보, 호세 모이세스 마르틴 카레테로 CDTI 원장). /KIAT

-스페인 중대형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26~2028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만 유로(한화 약 75억)씩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KIAT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국 전문기관 간 동반자 관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APEC 회원국,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점검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 실무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경주에서 식량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

책 실무회의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회의 첫날인 4일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정해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수출 위기, 중견기업 글로벌 사업으로 돌파”

코트라-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강소·중견기업 총 300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5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이하 중견기업 글로벌 사업)’에 강소·중견기업 총 300개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2억원(기업 매칭액 포함)의 범위에서 △대 1 수출 컨설팅 △해외무역관 특화마케팅 △전시회 △국제운송 △해외규격인 증 등 수출에 꼭 필요한 7000여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코트라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선정 기업 3자 협업체계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로드맵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 참여기업은 2020~2024년 연평균 18%의 수출액 성장을 기록했으며, 목표시장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47억달러를 달성했다. 참여기업 평균 수출액은 7228만달러로 중견기업 평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본사 전경.

수출의 4배가 넘는다.

코트라는 전격적 요청자인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메타바이오메드사의 경우 두바이, 호치민에서 고객 행사를 개최하고, 중동·아세안·인도 등 주력시장 수출이 4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불닭볶음면 제조업체 삼양식품은 태국에서 신제품 론칭으로 지난해 7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 한편, 미국 관세정책, 환율변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무역관 20개소를 ‘관세대응 전담 헬프데스크’로 지정하고 산업별 수출전문가와 협력해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장 진출 지원사업(30종)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준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코트라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상반기 중 글로벌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수출증가율, 종업원수 등 계량 지표와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hvoucher.com)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전,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 최고 등급

전 항목서 고득점 달성, 역대 최고점

한국전력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과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와 개방관리 노력 수준을 점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97.75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노력을 점검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에서 98점(평균 89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달성했다.

한전은 2019년부터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활용도 저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구간 세분화, 패키지 데이터셋 제작 등으로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킨 점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2020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콘크리트 전주(올해 2월 기준 약 985만기) 자동진단 솔루션 개발로 전주의 유지보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Gallery 315 개관기념 초대전

2025 **3.6** (목)  
— **3.17** (일)

An Invitational Exhibition 

**김수영, 신미혜, 홍승일 3人展**

**AN OPENING RECEPTION**

2025. 3. 8(토) 오후 3시, 갤러리315,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 11:00~19:00(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 02.6743.3370



#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인 3058명 조정 ‘급물살’

의대학장 ‘증원철회’ 요구 수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전제 합의  
“증원 전으로 원상복귀 검토”

사실상 의대 증원 희망 최전선에 있던 의대 보유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다수 의견을 모으면서 내년엔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선발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도 이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내달 정원 확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 증원을 0명으로, 총 3058명 모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개강 이후에



지난 3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

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의대 학장들이 한 ‘증원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

면서 각 대학이 시설·교수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 상황에서 총장들이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또한 의대 정원 규모는 학교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원 기회를 놓치지 않지 않은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총장들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정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료계가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소속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년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 7일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이르면 7일 교육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정원은 증원전으로 원상복귀하도록 정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허구연 KBO총재가 5일 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프로야구장 조성 성남시, KBO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성남시

## 성남시 2028년 프로야구시대 KBO와 준비 ‘착착’

성남시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프로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여 2028년 프로야구 시대를 연다.

성남시는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만석 이상의 프로야구장을 2027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만나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프로야구 경기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프로야구 1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구대회와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야구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홈구단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야구 1군 경기, 올스타전, 국가대표 경기 등 연간 10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AI 3대 강국 도약... ‘서울형 R&D 지원’에 410억 투입

지나해 367억 대비 약 12% 늘어  
저비용·고성능 AI 등장에 투자 확대  
스타기업 배출, 민간투자연계 등 지원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울형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혁신기술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전년(367억원) 대비 약 12% 늘어난 41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미래 선도산업 선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R&D 분야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시는 올해 저비용·고성능 AI 모델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등장을 계기로 초기 기술개발부터 기업성장 등, R&D 전 분야에 AI 투자를 확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세계적으로 근본혁신기술(딥테크)이 산업을 주도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서울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195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R&D 스타기업 배출을 위한 기업 성장을 위해 78억원을 투입, 전폭 지원한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된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초기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약할 수 있게끔 돕고,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하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R&D 사업’을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또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 S)’를 통해서 투자가 투자 또는 확약한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 민간 펀딩 및 기술개발

과 연계해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킨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및 약자 기술 전파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다양한 실증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한다.

‘약자기술 R&D’는 전년보다 공모 과제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약자 기술기업이 기술개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이제 세계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라며 “서울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거듭나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사이버대학 AI·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교육부, 4년 만에 사이버대 사업 신설  
5개 대학 선정해 총 19억 투입 예정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5개 대학을 선정해 총 19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대학 재정 지원사업이 신설된 건 4년 만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

다.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30대 이상 성인(30+)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사업관리·컨설팅 등 운영비 1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이다. 사이버대학 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억6000만원 씩 총 지원금 18억원을 지급한다.

/이현진 기자

## 서울 국제바칼로레아 학교, 82곳으로 확대

토론수업, 논술·서술형 평가

학생 중심 토론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가 특징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체계를 확대하는 서울 관내 학교가 올해 8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2025 IB 관심학교’를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82개교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인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발전시켜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900개 이상 학교에서 약 200만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학교는 IB후보학교를 포함 91교로 확대됐다. 지난해 서울 관내 IB관심학교는 73곳으로, 후보학교 6곳을 포함해 총 79곳이 IB학교로 운영됐다.

특히, IB관심학교 참여가 초·중학교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에 고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총 8개 고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IB 관심학교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대상 IB 프로그램인 IBDP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운영 방안 검토를 학교 현장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IB학교의 한국 버전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 발행사와 협력해 6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돼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 도서 기본정보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이현진 기자





인터뷰 |

전 세 희 하림 분리닭가슴살 단백질사업팀 차장

# “닭가슴살 분말화, 국내최초 ICBP 개발 가족이 먹는다 생각, 좋은 원료만 넣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단백질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백질 식품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은 근육 합성은 물론, 면역 항체와 콜라겐의 구성 성분으로 섭취가 필수적이다.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은 닭가슴살 원료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단백질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을 원료로 한 ‘오! 늘단백 프로틴 쿠키’, ‘오! 늘단백 초코바’를 선보였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오! 늘단백 초코바’ 2종(피스타치오맛, 카라멜맛)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메트로경제는 최근 전세희 하림 단백질사업팀 차장을 만나 ICBP 소재와 관련된 제품, 향후 사업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에 대해 소개해달라

ICBP은 하림이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국내산 무항생제 닭가슴살에서 분리 정제해 만든 단백질이다. 닭가슴살을

ICBP, 닭가슴살 지방 절반 줄이고 단백질 4배 증가, 순도높은 단백질

‘오! 늘단백 초코바’ 등 제품 2종 출시 한달만에 판매량 100만개

‘글루텐 프리’ 바탕 퀄리티에 집중 단백질 음료·바, 라인업 늘릴고 닭가슴살 ‘고부가가치 사업’ 목표



하림이 선보인 ‘오! 늘단백 프로틴 쿠키’와 ‘오! 늘단백 초코바’ /손진영 기자

장시간 휴대 보관하면서 음용하기 쉬운 고단백 식품으로 제공하고자 닭가슴살을 분말화해 국내 최초로 3세대 단백질 소재인 ICBP를 개발했다. 닭가슴살 원료에 비해 지방은 1/2 수준으로 낮추

고,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 증가된 순도 높은 단백질이다.

우유에서 기반한 유청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분리닭가슴살 단백질이다. 유청단백질은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섭취가 힘들지만, 분리닭가슴살 단백질은 소화도 잘되고 체내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이라 할 수 있겠다.

## ◆현재까지 개발한 제품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오! 늘단백 프로틴 쿠키’는 고단백, 고식이섬유 단백질 쿠키로 100% 국내산 쌀로만 만든 글루텐 프리 영양 간식이다. 버터 코코넛, 초코 등 2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봉지(40g)에 계란 1개 반 분량의 단백질 9g과 사과 1개 분량의 식이섬유 4g이 함유되어 있어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출시한 ‘오! 늘단백 초코바’ 2종은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을 겉면에 풀코팅한 단백질바로 당 함량은 3g에 불과해 당분 걱정 없이 밀크 초콜릿의 단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우유 단백질(동물성), 대두 단백질(식물성), ICBP 등 3종 복합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설계해 한 개 기준 16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

특히 단백질바는 출시 한 달만에 100만 개 판매량을 달성했을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타고 있다.

##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있다면

포화된 단백질 식품 시장에 후발주자로 참전하면서 제품의 차별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제품의 포지셔닝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해외 제품들의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글루텐 프리’를 바탕으로 제로 트랜드에 맞춰 ‘밀가루 제로’라는 셀링포인트를 전면에 내세운 단백질바를 기획했다. 무엇보다 내 가족이 먹을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고 ‘로우스펙’에 초점을 맞춰 더 첨가하기 보다는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배제해 개발했다. 하림에서 추구하는 철학이 ‘좋은 원료로 맛있게’이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보다는 퀄리티에 집중해 만들었다.

## ◆앞으로의 단백질 시장 전망과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속노화 식단’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저속노화 식단은 통곡물

채소 중심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을 말한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단이다. 단순히 겉모습만 젊어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부터 건강하게 관리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저속노화 트렌드와 더불어 칼로리, 당류, 나트륨, 알코올 등을 낮추고 맛을 유지한 ‘로우 스펙’ 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단백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ICBP 사업의 방향성은

2019년부터 ICBP 소재 개발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이다. 회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단백질 제품 카테고리에서 하림 제품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달 중 단백질 음료(라떼)도 출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단백질바도 다양한 라인업을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ICBP 소재를 알리고 B2B 사업을 하는 것이다.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이 닭가슴살을 갖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백, 370개 브랜드 ‘봄 쇼핑’ 물량 푼다

### 오늘부터 ‘더그레이트 패션 페어’ 골프·스포츠·아웃도어까지 확장 메종키츠네·시스템옴 등 참여

롯데백화점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총 3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더그레이트 패션 페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패션 브랜드 중심에서 골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확장하며, 참여 브랜드 수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행사 시작일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기고, 기간 역시 4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대표 브랜드로는 ▲타임 ▲메종키츠네 ▲피어리엔 ▲시스템옴 등이 있다. 점포 및 브랜드에 따라 구매 금액의 최대 10%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



롯데백화점 본점 4층 ‘타임’ 매장에서 봄 신상 패션을 구경하는 고객 모습. /롯데백화점

하는 사은 행사와 금액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는 ▲한섬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널 ▲LF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섬 브랜드에서는 기존 마일리지 적립률의 2배를 제공하는 ‘한섬 더블 마일리지’ 행

사도 열린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롯데백화점몰에서는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월간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 ‘롯데백익’을 진행한다. 대표 브랜드로는 ▲나이키 ▲내셔널지오그래픽 ▲씨스데이 아일랜드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진승현 패션부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맞춰, 봄 쇼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대형 패션 행사 기간을 앞당기고 참여 브랜드 수도 2배 이상 늘려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날씨 등 변화하는 쇼핑 환경에 예의주시하며 그에 걸맞은 프로모션과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CJ제일제당 ‘비비고 육즙가득만두’ 출시

고기·야채 큼직하게 썰어넣어

CJ제일제당은 고기와야채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비비고 육즙가득만두’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 한식만두를 구현하기 위해 비비고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다.

‘비비고 육즙가득만두’는 시중 냉동만두와 달리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기존 스테디셀러인 ‘비비고 왕교자’에 비해 최대 두 배 가량 큰 크기의 고기가 들어있어 꽉 찬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고, 아삭함과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 애호박과 새송이버섯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만두피는 자사 냉동만두 제품 중 가장 얇고 쫄깃해 쫄만두, 군만두, 만두국 등 다양

하게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한 단계 진화된 정통 한식만두를 선보이기 위해 기존 냉동만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통해 만두 전문점에서 느낄 수 있는 식감과 육즙을 담은 ‘비비고 육즙가득만두’를 선보였다. 큼직한 원재료를 만두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도 새롭게 개발해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육즙가득만두’ 출시를 기념해 9일까지 CJ더마켓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비비고 육즙가득만두’를 구매한 고객 중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CJ더마켓 적립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풀무원아미오 ‘두부간식’ 올해 매출 235%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은 171% 급증

풀무원식품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의 두부 간식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아미오의 두부 간식은 2024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171.4% 증가하였으며, 올해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4.8%까지 치솟았다.

풀무원아미오는 2022년 말 반려견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두부를 활용한 ‘두부너겟’을 처음 출시했다. 이후 ‘자연담은 간식’ 라인업으로 ‘두부과자’, ‘채소쫄쫄 두부붕’까지 추가 출시하여 총 3종의 두부 간식을 통해 시장 내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두부 간식 제품군의 매출 성장 배경

으로는 우선 반려견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벳 휴머니제이션’ 트렌드의 지속이 꼽힌다.

풀무원은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두부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했다. 너겟 형태의 트리트 제품인 두부너겟과는 차별화한 두부과자는 바삭한 식감, 두부붕은 말랑말랑한 제형을 강조하여 반려견의 입맛을 잡았다.

/신원선 기자

## 농심, 신라면·새우깡 등 평균 7.2% 인상

17개 브랜드 대상 2년6개월 만

농심이 2023년 7월 인하한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가격 인하 당시 소매점 기준 신라면은 1000원에서 95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조정하고, 총 56개 라면과 스낵 브랜드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격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농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인상 압박을 견뎌 왔지만, 원재료비와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영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급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제39호 국산 신약 탄생 ‘주목’ “글로벌 시장공략 수준까지 도달”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전신발작 추가·투약연령 확대

**큐로셀 CAR-T 치료제 ‘안발셀’**  
**동아에스티 과민성 방광 치료제**  
**LG화학 통풍 신약 ‘티굴릭소스타트’**

지난해 국내 제약 업계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신약 어나프라주 등 두 개의 국산 신약이 연이어 등장한 가운데, 올해도 제39호 국산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후속 임상에 역량을 쏟으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 적응증으로 전신 발작을 추가하고, 투약 연령을 소아 및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에서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춰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에 쓰인다.

이에 앞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상은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세노바메이트를 투여한 환자에서 발작 빈도 감소율 55%, 완전발작소실률 28% 등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024 미국 뇌전증학회’에서 공개된 한국·중국·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에서도 발작 빈도 감소율과 완전 발작소실률의 유의미한 개선이 입증됐다. SK바이오팜은 동북아시아 환자들에게도 세노바메이트가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에서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학적,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에스티도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세노바메이트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품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연구진이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미지.

목허가 신청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세노바메이트 발매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는 2024년 1월 SK바이오팜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어 세노바메이트 국내 공급 및 판매를 맡는다.

신생 바이오 기업인 큐로셀이 개발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후보물질 ‘안발셀(제품명: 립카토주)’도 제39호 국산 신약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큐로셀은 올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발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까지 신청을 완료해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한 달여 만이다. 안발셀은 보건복지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2호 약제이기도 해 기존 절차보다 더욱 빠른 일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안발셀은 중증 혈액암인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치료제다. 국내 임상 2상 결과, 유효성 분석군 73명에서 안발셀 투여 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은 67.1%에 달한다. 완전관해율은 해당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척도다. 기존 CAR-T 의약품이 임상에

서 완전관해율 40%~54%를 기록한 데 비해 안발셀은 향상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동아에스티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0810, LG화학의 통풍 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등도 지난해부터 국산 신약 후보로 주목받아 왔다.

동아에스티는 2010년부터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DA-8010’ 개발을 이어왔다. 다만, 지난해 14년 만에 임상 3상을 종료했으나 해당 물질은 약물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동아에스티는 ‘DA-8010’을 1일 1회 복용하는 계열 내 최고 치료제로 개발해 온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상세 분석을 계속해 향후 개발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이라는 것은 인체에 직접 적용하고, 영향을 준다는 특성상 긴 시간의 임상개발은 넘어야 할 관문이고 이후 단계에서는 의료 현장과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면서도 “국내 신약개발 수준이 글로벌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어 보다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한국인삼공사, ‘곰팡이 독소’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받아

국내 식품업계 최초 자체 시험법 구축  
KOLAS로부터 시험규격 추가 인정

한국인삼공사가 ‘곰팡이독소 성분’ 분석에 대해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임을 새롭게 인정 받았다.

한국인삼공사는 앞서 작물보호제, 중금속, 무기성분, 미생물, 영양성분, 진세노사이드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자체 시험법(In-house Method)을 구축해 ‘곰팡이독소 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이번 ‘식품 중 곰팡이독소’ 시험 규격에 대한 추가 인정은 한국인삼공사가 식품관련 분석연구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인삼공사는 2010년 KOLAS로부터 인삼 및 홍삼분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인삼 진세노사이드 및 작물보호제 분석규격 추가와 식품 무기성분 분석에 대한 신규인정을 획득하기도 했다.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2023년 현재 APAC MRA에는 33개 지역 55개 인정기구, ILAC MRA에는 116개 지



한국인삼공사가 곰팡이 독소 성분 분석에 대해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받았다. /한국인삼공사

역 109개 인정기구 및 IAF MLA에는 5개 지역기구(약 70개 이상 국가) 83개 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국내 홍삼의 해외 수출 시 인증 받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이나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식품업계 최초 곰팡이독소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정관장의 엄격한 품질 관리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관장은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홍삼 글로벌 시장 리더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삼양사-퓨리오젠, 아가로스수지 공급 협약

새로운 의약품 수지 공동 연구개발도

삼양사는 지난 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삼양사 본사에서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아가로스수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양사는 퓨리오젠이 개발한 아가로스 수지를 공급받는다. 양사는 향후 새로운 의약품 수지 공동 연구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가로스 수지는 항체, 펩타이드 등 바이오의약품의 분리 및 고순도 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분리

제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결정한다.

삼양사는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한 데 이어 퓨리오젠의 바이오의약품용 아가로스 수지를 도입해 소재 국산화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퓨리오젠은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아가로스 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만 리터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추후 증설을 통해 최대 연간 5만 리터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페어리 피치 3종 선포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에서 ‘페어리 피치’ 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얼굴에 복숭아빛 광채를 제공한다. 분홍색과 복숭아색이 조화를 이룬 ‘엔젤 피치’, 고급스럽고 우아한 장미를 연상시키는 ‘로즈 피치’, 생기를 부여하는 ‘피치 퀴츠’ 등으로 구성됐다. 피부 톤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다양한 메이크업을 완성해 준다.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베이컨드 제형에 펄 소재가 더해진 것도 특징이다. 색감과 함께 광택을 갖춰 화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청하 기자

##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쿠로미’ 공개

국내·日 동시 출시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산리오 캐릭터즈와 협업한 ‘부스터 프로 쿠로미’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스터 프로는 피부 탄력, 모공 등 6가지 스킨케어 기능을 모두 탑재한 뷰티 디바이스다. 이번 한정판에는 산리오 캐릭터즈 대표 캐릭터 쿠로미의 개성이 더해졌다.

먼저 디바이스 본체에는 쿠로미를 상징하는 보라색이 전체 적용됐다. 디바이스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뚜껑은 쿠로미 얼굴 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제작됐다. 사용 시간 등을 표시하는 전면 LCD 화면에도 쿠로미가 등장한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쿠로미 굿즈를 선보인다. ‘부스터 프로 쿠로미’ 구매시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 프로 쿠로미’ /에이피알

쿠로미가 삽입된 연보라색 헤어밴드, 스티커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부스터 프로 쿠로미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동시에 출시돼 국내 메디큐브 공식몰, 일본 큐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순수 비타민C 역대 함량... 효능도 ‘쑥’”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2종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에서 ‘비타민C 엑스퍼트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C 엑스퍼트 40% 마스크 컨센트레이트’와 ‘비타민C 엑스퍼트 25% 향산화 토닝 앰플’로, 역대 최고 함량의 비타민C를 담았다.

기존 순수 비타민C 화장품은 15~20% 정도의 함량이 피부에 잘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오페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을수록 피부 흡수량도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해 이번 신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아이오페의 신제품 비타민C 엑스퍼트 2종은 아모레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CJ올리브영 등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10<sup>th</sup>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대차 아이오닉 5 N, 獨 아우토빌트 전기차 평가 1위

총점 584점으로 ID.4 GTX 제쳐 독일 현지서 높은 상품성 입증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동화 모델인 아이오닉 5 N 라인이 독일서 현지 브랜드를 제치고 상품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라인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총점 584점으로 폭스바겐 ID.4 GTX (580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신뢰성 높은 자동차 매거진인 아우토빌트의 평가 결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아이오닉 5 N 라인

이번 비교 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아이오닉 5 N 라인은 4가지 항목인 바디,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경제성에

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로서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오닉 5를 비롯해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고객들이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오닉 5는 E-GMP를 적용, 차별화된 디자인과 3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공간을 갖췄다. 아울러 18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 등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아이오닉 5는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2022 세계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동차 상을 석권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수협은행, '저출산 극복 캠페인' 전개

Sh수협은행은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저출생 극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왼쪽 세번째)이 '저출생 극복 캠페인'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 우덕재단, 우 장학생 모집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우(友) 장학생을 모집한다.

'우(友, 벗 우)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우덕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전화 인터뷰를 거쳐지며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 삼성바이오, 사내 특강·퀴즈 이벤트 등 양성평등 '앞장'

공식 포즈 사진촬영 캠페인 등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엔은 1975년 세계 여성의 날을 3월 8일로 공식 지정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취를 기념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해왔다. 올해 슬로건은 '더 빠르게 행동하라'를 주제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강을 열었다. 이날 최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홀에서 '생물학 관점에서 보는 양성평등의 실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조화로운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남성, 여성 임직원의 역할과 행동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과 5

일 사내 복지동 '바이오플라자'에서 진행한 '다양성&포용성 퀴즈'를 통해서 사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와 혜택 등을 알렸다. '세계 여성의 날 공식 포즈 사진촬영 캠페인'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모두가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해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양성평등을 더욱 확립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육아 휴직의 경우 임직원 성별에 관계 없이 자녀 당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는 법정 기준 1년보다 두배 긴 기간이다. 또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90%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네오위즈, KRX '공시우수법인' 선정

네오위즈가 한국거래소(KRX) '2024년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코스닥시장본부 민경욱 부이사장, 네오위즈 배태근 공동대표와 공시 담당자 박아람 차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오위즈

## BAT로스만스, 자립준비 여성청년 위생·생활용품 지원

생리대·립밤 등 다양한 품목 구성

BAT로스만스가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들에게 위생 및 생활용품 키트 100상자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여성 청년들의 건강



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사단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및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키트는 생리대, 여성청결제 등 필수 위생용품부터 온열패

치, 핸드로션, 립밤, 바디케어 제품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됐다.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사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

한 구성원들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BAT로스만스는 기업 내 여성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관리직의 47%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민 인 리더십(Women in Leadership)' 등의 성장 프로그램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에스오일, TS&D센터 풋살장 무료 개방

에스오일이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TS&D센터 풋살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에스오일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5 | 해질 / 18:31

3월

7일 (금)

음력 : 2월 8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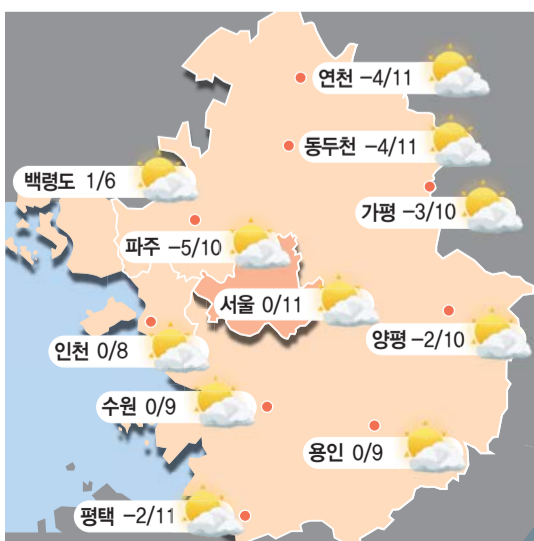
0 ~ 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한국PR협회, 조영석 신임회장 선임

한국광고총연합회 부회장 등 역임

조영석(사진) 전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한국PR협회(KPRA)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PR협회는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조영석 전 아시아나항공 전무를 제2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회장직은 2년간 임기이다.

고려대학교 학사와 연세대학교 석사를 졸업한 조 회장은 한국PR협회 부회장, 한국광고주협회 운영위원, 한국광고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홍보실장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임원 역임하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 홍보 기획, 미디어 대응, 광고 전략 등 PR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재정 확충과 회원 권익 확대를 통해 협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부음

▲황광남씨 별세, 기동민(전 국회의원)씨 장인상 = 6일, 연세세병원장례식장 연세 1호(경남 창원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발인 8일. 055-548-7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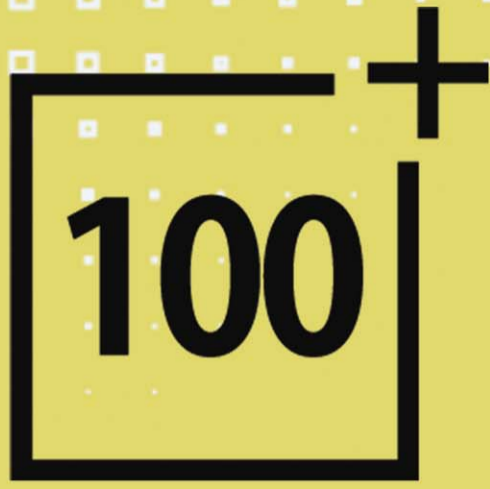
▲박병섭씨 별세, 박봉규(청주시 청원구청장)씨 부친상 = 5일 오후 6시40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8일. 043-210-5444

▲이상만씨 별세, 이영철(광주시청 대변인 실 미디어운영팀장)·영식(전남도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씨 부친상 = 6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062-527-1000

▲정국영(대전도시공사 사장) 부친상 = 6일, 부여사비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8일 오전 8시.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 이자 낮추라는 정부, 공존의 성공법은 어디에?



김문호의  
단상

은행 빚 갚느라 서민들은 등골이 쫄다. 대출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5%(변동금리 기준)대로, 신용대출 금리도 연 6%에 근접했다. 서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대출자 중 8%(157만명)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쓴 대출자도 275만 명(13.9%)이나 됐다.

고금리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의 공분(公憤)에 금융당국이 다시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미친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맞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경

쟁에서 뒤쳐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때론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살펴 세밀하게 조정하는 관치나 정치도 요구된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관치와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손으로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사례는 많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그중 하나다. 결과는 고용 참사였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 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현 정부의 정책도 명확한 목표와 전략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023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은행 독과점’ 발언이 이어졌다. 그해 금융당국은 대출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과 손뼉을 마주했다.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긴 축기조였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은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였다가 관련 대출이 늘자 갑자기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며 중단시켰다. 끝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다가 다시 대출을 조이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갈팡질팡이란 말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게다.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여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은행들을 두둔하고,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은행들은 오랫동안 관치금융을 비판해 왔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정부를 탓하며 관치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대신 은행들이 앞서 국내 독과점 이익만 챙기는 체질도 그대로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도 고객 혜택에는 인색하다.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혁신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핏줄인 금융이 건강해야 전체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이 돈다.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정치권과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국가 경제의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을 되살리는 성공법이 무엇인가를 늘 각성해야 한다. 은행들도 공존금융의 노력을 한층 가속함으로써 경제의 혈액이 막힘없이 잘 돌도록 하는 심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 ‘미키17’과 반도체 시장의 교차점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을 최근 흥분의 시대를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과 엮어 분석하면 흥미롭다. ‘미키 17’은 과학기술의 오류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휴먼프린트’라는 기술을 통해 같은 인격체가 반복적으로 재탄생하는 미키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오류로 새로운 인격체인 미키 18이 탄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위기가 펼쳐진다. 이를 계기로 미키 17은 복제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결국 미키 17은 차세대 기술인 휴먼프린트를 포기하면서 복제 인간 시대의 끝을 맺는 선택

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이 영화의 핵심은 ‘기술의 오류’와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박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각 기업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외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반도체 특별법까지 보류되면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외부 리스크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대만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반도체 관련 관세와 미국과 TSMC(대만 반도체 제조업

체)의 협력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키 17’에서 복제된 인간들이 겪는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

반도체 시장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반도체 선두주자의 자리를 내주게 될까.

급변의 시대에는 한번의 선택이 전체 생태계를 좌우한다.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키 17과 미키 18의 협력처럼 국내 반도체들의 ‘팀 코리아’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 3월 7일 (금 2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60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보지 마라. 7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 84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37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펴난갑하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다. 73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니 마음도 든든하다. 85년생 뱀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38년생 물에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 50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게. 74년생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86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3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51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75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도록. 87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40년생 문서의 매개가 길하다. 52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풍이라도 준비. 64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6년생 천하절색의 양귀비는 성형으로 되지 않음이다. 88년생 이웃을 살피주니 남들의 찬사도 받는다.



41년생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53년생 분수에 맞게. 65년생 혼란 성씨 이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77년생 키우다가 버리면 유기견이 되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이니 신중하게 키우도록. 89년생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하루 간다.



42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5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66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78년생 헤어져 돌아섰던 사람을 또다시 만난다. 90년생 오후에 부모님께 경사 소식이 온다.



43년생 과민한 반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55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6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자. 79년생 무엇인 받고 싶다면 먼저 줘라. 91년생 사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44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라. 56년생 오후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68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92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으니.



4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하자. 5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행운이 깃든다. 69년생 종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 81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기본일 듯. 93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즐겁다.



46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58년생 곁을 떠나는 사람은 짐지 마라. 70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82년생 질투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동반된다. 94년생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47년생 노모님 살아 실제 성기기를 다하라는 말이 새삼스러. 59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1년생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추스르자. 83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95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盖世)는 하세일 뿐.



## 김상회의四季 한민족의 저력

세계 어디를 가나 글로벌 문화등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젊은 동력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김치는 물론이요,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이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제적 위상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화 역량까지도 단연 상승한 것이다. 벌써 오십 년도 더 오래전에 탄허 스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이 실현되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필자는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과 기질에 관해 그 원동력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를 기고한 적이 있다.

한국인들처럼 독특한 민족성과 기질은 결국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결론지어 본 것이다. 자연스럽게 풍수지리학도 연결 지어 보게 되었다. 백두대간의 기운은 척추 역할을 하면서 강이 흐르듯 산도 흐른다. 규장각에 소장된 ‘해동도리보(海東道里譜)’라는 ‘산경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천은 백두산에서 출발해 모든 산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경표’라는 말 자체가 산의 경락, 즉 ‘산의 흐름’을 뜻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에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한국인의 근면·성실이라는 전체적인 민족성도 형성되게 하였지만, 지방 따라 조금씩 지방색이 생기는 것은 지방마다 산천이 다르기 때문임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서 유달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풍수학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문창성이 뛰어난 봉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유려한 산천을 지닌 지역의 사람들은 말씨부터도 느리면서 급해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 한민족의 장점을 얘기하려면 ‘빨리빨리’로 급한 성질인데, 이로 인해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니 단점이자 장점으로 한민족의 저력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9	8
3			7		
		9			6
		2	6	4	
6	8		2	5	
	4	5	9		
2		7			
		5			6
8	4	1		3	

	3	9		2	7
		3	6		
	7	1		9	
	3	1			2
2					9
9				7	8
	9		7	4	
		8	3		
6	4		2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2	9	8	9	2	1	6	7	8
2	9	6	8	7	9	2	1	8
1	7	8	2	6	9	9	2	1
8	2	9	6	9	8	7	2	1
9	1	2	7	8	2	8	6	9
6	8	7	1	9	2	8	2	9
7	2	1	9	6	7	2	8	2
9	8	1	9	2	8	9	1	8
8	6	2	2	1	8	9	9	7

8	1	8	2	6	9	7	9	2
2	6	9	8	7	8	9	2	1
9	2	7	2	1	9	6	8	8
7	8	2	1	8	2	9	9	6
6	8	1	9	7	8	1	2	2
2	9	9	6	8	2	1	8	7
8	9	6	8	2	1	2	7	9
1	7	8	9	2	8	2	6	9
9	2	2	7	9	6	8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새털처럼 가볍게 즐겨라... 디코이 페더웨이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저칼로리·저알코올 와인

화이트 와인 한 잔, 140ml의 칼로리는 보통 120kcal다. 한 병으로 따지면 약 640kcal다.

그럼 30%만 다이어트를 시켜보자. 와인 한 잔이 80kcal로 가벼워지면 한 병을 다 마셔도 430kcal다. 200kcal가 넘게 줄었다.

저칼로리 와인으로도 자전거 타기 30분 혹은 조깅 20분을 한 효과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관건은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와인의 맛이나 아로마가 희생되었는지 여부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는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저칼로리 와인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 (Decoy Featherweight Sauvignon Blanc·이하 페더웨이트)'을 소개하며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알코올, 저칼로리 와인을 찾는 트렌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공고화되고 있다"며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같은 포도를 사용해 일관된 품질과 맛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가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을 비롯해 덕훈 와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이와 함께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알코올, 저칼로리 와인을 찾는 트렌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공고화되고 있다"며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같은 포도를 사용해 일관된 품질과 맛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와인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업계의 거



'디코이 페더웨이트 소비농 블랑' 한 잔의 열량은 80kcal로 평균 화이트 와인보다 30% 이상 낮다. /나라셀라

스릴 수 없는 흐름이 저칼로리, 저알코올 혹은 무알코올이다. 미국에선 이미 이런 스타일을 묶어 '당신에게 더 좋은 와인(Better For You·BFY)'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덕훈이 저칼로리 와인을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엔 소비농 블랑과 샤도네이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만

2종 내놨지만 저칼로리 레드와인도 출시할 계획이다.

페더웨이트 2023 빈티지는 레몬과 라임의 시트러스에 잘 익은 복숭아 향까지 손색이 없다. 입에서는 소비농 블랑 특유의 산미가 선명하며, 여운도 길게 남는다. 와인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알코올이 빠져서 더 밝고 깔끔해졌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와인 평가 대회에서 페더웨이트는 5위에 올랐다. 저칼로리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소비농 블랑 품종 가운데서 말이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야 한다.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이 알코올 도수가 13.9도인데 페더웨이트는 9도까지 낮아졌다. 한 잔 기준 칼로리는 80kcal, 지방은 0g이다.

칼로리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맛과 향을 지키면서 말이다. 자연적으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포도를 좀 더 일찍 수확하거나 양조과정에서 발효가 100% 되기 전에 중단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의미있게

저알코올이라고 할 만한 와인을 만들기는 어렵다.

페더웨이트는 일단 기존 디코이 소비농 블랑과 똑같이 만든다. 그다음 일부를 진공증류기법을 이용해 알코올을 분리하고, 원래의 소비농 블랑과 섞는 방식이다.

칼 이사는 "알코올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번의 프로세스를 거칠 경우 와인의 아로마나 풍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덕훈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저에서 한 번에 알코올을 분리해 저알코올 와인이라도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덕훈 포트폴리오의 나과벨리를 기반으로 한 덕훈 빈야드에서 출발해 이제는 10개 와이너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최대 와인 브랜드 중 하나다. 덕훈 빈야드가 신세계 밀렛 와인의 기준점을 만들었다면 디코이는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며 와인애호가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 와이너리다. 덕훈 포트폴리오 전체 생산량의 70%를 바로 이 디코이가 차지한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연주자 시선으로 무대 뒤 경험... 롯데 콘서트홀 '스테이지 투어'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의 각종 시설과 무대 뒤 숨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는 스테이지 투어를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6회 진행한다.

회차별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스테이지 투어는 관객이 아닌 연주자의 시선에서 콘서트홀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이 직접 인솔해 약 한 시간 동안 총 8개 공간을 살펴본다. 참가자는 무대에 올라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를 체험할 수 있고 연주자가 사용하는 분장실과 악기보관실, 리허설룸 등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피아노 악기 보관실에서는 2억 원 상당의 스타인웨이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 4대와 8억원 상당의 이동형 오르간 콘솔 1대도 확인할 수 있다.

### 봄맞이 3개 테마로... 예술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예술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가 봄을 맞아 3가지 테마로 관객들과 만난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13일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토요콘서트, 28일 'KT'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13일 11시 콘서트는 지휘와 리코더

협연을 동시에 선보이는 김민석과 2015년 오스트리아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조형준, 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무대를 채운다. 남미의 에너지와 바로크 시대 속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마르케스 '단손 제2번'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심포니 댄스' 등을 연주할 예정



이다. 공연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 등에서 가능하다.

### '문학동네 소설상' 박선우 작가 '어둠 뚫기' 출간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래서 나와 엄마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엄마를 이해해보고 싶었다."

제30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박선우 작가의 '어둠 뚫기'가 출간됐다.

책은 저자가 2022년 펴낸 소설집 '햇빛 기다리기'에 수록된 단편 '겨울의

끝'을 확장했다. '겨울의 끝'은 삼십 대 남성이 삶에서 겪는 여러 부침과 엄마와의 끈끈한 애증 관계를 펼쳐낸 작품으로 저자에게 더해 사랑과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추가했다. 괴롭고 힘든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왜 계속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고 평했다. 177~178쪽 /뉴시스

냈다. 한은형 소설가는 "진실에서 우리나라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 바로 글쓰기의 능력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 주말은 책과 함께

# 인간·사회의 공정함은 양심서 출발

얼마 전 애를 낳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포착했다. 그는 아기에 대해 "너 임씨야, 이씨야? 임씨지? 임마 딸 맞지?"라는 질문을 해냈다. 갓난쟁이는 엄마 속을 아는 지, 모르는지 빵싹싹 웃고만 있었다.

친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길래 연유를 물었다. 억울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열달 동안 힘들게 품었다가 낳은 건 저인데 왜 남편 성을 붙여 불러야 하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니 참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다들 당연한 듯 아버지 성을 물려받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양육의 9할 이상을 어머니가 맡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한국은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됐지만, 자신의 성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긴 어렵다. 왜일까.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쓴 '양심'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책에는 그가 호주제 폐지 운동에 가담했다가 겪은 고초들이 기록됐는데 참담하기 그지없다.

1999년 최 교수는 한 강연에서 "자연계를 오랫동안 관찰해 봤지만, 그곳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다"며 "만약 자연계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이다"고 말했다. 짧은 발언



양심  
최재천, 팀최마준 지음/더클래스

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강연이 방영된 다음날부터 그의 연구실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고 끊는 통에 전화 코드를 뽑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쓰는 생활이 1년 넘게 지속됐다.

테러는 언어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론 신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 교수는 물리적인 폭력에 당했다. 갓 쓴 포차림의 노인은 최 교수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고 "달렸네. 그런데 왜 암탉한테 야망을 펴고 그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갓은 수난과 모욕을 겪으면서도 그는 '차마... 어차피... 차라리...'란 심정을 안고 양심이 이끄는 길로 몸을 틀었다. "차마 외면할 수 없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온몸으로 덤벼들자." 20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美소비자, 이미 고물가에 고통... "관세로 인플레이션 심화"  
▲대만 국책연구소 "TSMC 대미 투자로 삼성전자 걱정 가장 커" /사진 뉴시스

▲관세 전쟁 일으키더니... "美, 인도에 농산물 제외 무관세 요구"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핵억지력으로 유럽 보호할 것"

▲머스크, 사립대 예산 지원 비판하며 "김정은도 배워야"  
▲美, 우크라이나 무기 이어 '정보 공유'도 중단... 전방위 압박





제39호 국산신약  
탄생 기대감  
글로벌 공략도  
L2



Life

현대차  
아이오닉 5N  
전기차 평가 1위  
L4



# 79년 발효기술로 깊고 진하게 한식의 근간 지킨 ‘전통의 맛’

‘샘표’하면 ‘간장’, ‘간장’하면 ‘샘표’를 떠올릴 정도로 ‘샘표간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장 브랜드다. 그 중에서도 ‘샘표 진간장’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오늘날까지도 1초에 한 병씩 판매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94년 출시된 ‘샘표 진간장 금F3’는 국내 간장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닐스코리아, 2023 간장 소매점 매출 기준)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샘표 ‘간장’

샘표의 창업주 박규회 회장은 해방 직후 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같은 처지의 피난민들에게 장을 제공하기 위해 1946년 회사를 설립했다. 샘표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샘솟아라’라는 의미로, 당시로는 과격적으로 한글을 브랜드에 사용했다. 샘표는 현존하는 등록 상표 중 가장 오랜 역사(등록번호 제362호)를 갖고 있다.

각종 요리책에 등장하는 ‘진간장’은 보통명사처럼 쓰이지만, 이는 샘표가 만든 상품명에서 출발했다. 샘표는 1966년 ‘진하고 구수한 맛의 간장, 정직하고 진심으로 만든 간장’이란 의미를 담아 ‘샘표 진간장’을 출시했다. 이후 샘표 진간장이 다양한 요리에 널리 쓰이며 주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진간장’이 시판 간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최근 샘표는 100% 자연숙성 ‘진간장 골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1994년 ‘샘표 진간장 금F3’ 이후 무려 30년 만에 선보이는 진간장 신제품으로 샘표의 오랜 발효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이다.

샘표 간장 중 가장 맛있었던 2011년도의 13년 이상 숙성된 씨간장을 활용해 진한 맛을 살렸으며, 천천히 제대로 4번 발효하고 저온숙성하여 조화로운 풍미를 완성했다. 또한, 두 번 달여 간장 고유의 진한 빛깔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샘표의 또 다른 1등 제품은 1989년 출시한 ‘샘표 양조간장 501’이다. 순수 국내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맛과 향의 차별화에 성공한 샘표 대표 간장이다. 발효 과정도 세밀하게 분리해 메주 발효, 저온 발효, 유산균 발효, 효모 발효, 숙성 발효 총 5단계로 나누어 건강한 효모와 유산균으로 천천히 제대로 발효했다. 잘 발효 숙성된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이 요리의 맛을 한층 더 살려준다.

반세기 넘게 NO.1 간장, 국민간장으로 사랑받은 샘표의 비결은 무엇일까? 샘표 간장 인기의 비밀은 ‘맛’이다. 샘표는 맛있는 장(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생물임을 일찍이 깨닫고, 1955년 식품업계 최초 장류 전문 연구실을 개설하는 등 창업 직후부터 미생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밀을 섞어 만드는 일본식 간장과 달리 오로지 콩만을 발효해 만드는 전통 한식간장은 발효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밀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지만 콩은 조직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발효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콩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용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를 정교하게 맞추는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샘표는 옛 문헌과 전국 각지의 장맛으로 유명한 집들의 장맛을 조사해 찾은 가장 좋은 장맛을 구현할 방법을 연구했고, 유익한 미생물로 콩알 하나하나를 메주로 만드는 콩알메주공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으로 마침내 한식간장 대량생산에 성공해 출시한 것이 ‘맑은조신간장’이다.

샘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장의 스펙트럼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도의 미생물 제어 기술로 염도를 낮추면서 전통 한식간장의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한식 국간장, 국산 콩으로 만든 국산콩간장, 갖은 재료를 넣고 달여 요리를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맛간장 조림볶음용·국짜개용 등 20여가지의 다양한 간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요리나 용도별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신선한 제철 채소에 붓기만 하면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샘표 장아찌간장’, 간장을 끓이고 식히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손질된 꽃게에 붓기만 하면 간편하게 계장을 완성할 수 있는 ‘샘표 만능계장간장’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샘표의 독보적인 콩발효 기술은 국가를 초월해 맛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통 한식간장 복원을 계기로 발효 기술을 발전시킨 샘표는 철저한 소비자 조사와 현지 식문화 연구를 더해 대두 알레르기 기가 있는 해외 소비자도 한국 고유의 감칠맛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완두 간장’을 선보이며 다시한번 연구개발(R&D) 역량을 입증했다.

샘표 완두 간장은 대두 대신 완두콩에 샘표만의 발효 기술을 적용해 알레르기 걱정 없이 한국 간장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샘표는 79년간 끊임없이 발효 기술을 축적하고, 우리 맛의 근간인 간장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도 쉽고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며, “한국 식문화 화를 이끌어 온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장(醬)의 가치를 높이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946년, 해방 직후 장 제공 위해 회사 설립  
진하고 구수한 맛 의미 담아 ‘진간장’ 출시  
최근, 발효 노하우 집약 ‘진간장 금F3’ 선택

순수 국내 발효기술 바탕으로 맛·향 차별화  
콩알 하나하나 메주로 만드는 공법 개발도

염도 낮추고, 풍부한 향 살린 ‘한식 국간장’  
대두 알레르기 걱정 없는 ‘완두 간장’ 등  
20여가지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 폭 넓혀



샘표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샘표 양조간장과 조신간장.

/샘표

## 메트로 한줄뉴스



▲디즈니 ‘백설공주’, 런던 시사회 포기…캐스팅 논란 의식  
▲유인촌 “국립예술단체, 지역 문화 균형발전 기여할 의무 있다”  
/사진 뉴시스

▲중원 핵심 황인범, 어느덧 한 달째 부상 결장…  
홍명보호도 ‘비상’  
▲‘70억원 사나이’ 삼성 최원태 “올해 150이닝·10승 이상 목표”

▲손흥민 이어 링크라도 분노…K리그 눈두렁 잔디, 관리 방안 고심  
▲‘AG 금메달리스트’ 리듬체조 손연재, 대한체조협회 이사 선임